

‘생활 글쓰기’를 통한 문학치료 —카르멘 마르틴 가이테의 『변화하는 구름 *Nubosidad variable*』—

전 미 연
서울대학교

전미연(2018), 「‘생활 글쓰기’를 통한 문학치료 —카르멘 마르틴 가이테의 『변화하는 구름 *Nubosidad variable*』—」,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9(2), 111-136.

초 록 카르멘 마르틴 가이테(Carmen Martín Gaité, 1925-2000)는 유년기에 내전을 경험한 ‘1950년대 세대(*la generación del Medio Siglo*)’의 일원으로서 내전과 프랑코 독재의 역사적 상흔을 작가 고유의 미학적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마르틴 가이테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원인 규명보다는 트라우마 주체가 사후 경험하는 치유의 문제에 천착하였다. 특히 1990년대 작품에서는 글쓰기를 통한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고에서는 소설 『변화하는 구름 *Nubosidad variable*』(1992)을 중심으로 ‘생활 글쓰기’를 통한 문학치료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 치료학 관점에서 텍스트의 작품 서사와 삶을 구성하는 자기 서사는 조용하며 공명을 일으키게 된다. 본고에서는 두 여성 주인공의 트라우마의 발현 양상과 편지와 일기를 통한 저널치료 과정, 문학 텍스트를 통한 독서치료의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해석에 치중한 고전주의 정신분석의 한계가 공감에 바탕한 문학 치료를 통해 극복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문학 작품 서사가 개인의 병약한 자기 서사를 변형, 조정하여 건강한 자기 서사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논의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생활 글쓰기’를 통해 여성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창작가이자 자신 고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객체에서 주체로 변화하며 주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볼게 될 것이다.

핵심어 카르멘 마르틴 가이테, 생활 글쓰기, 이상적 대화자, 공감, 문학 치료

I. 서론

카르멘 마르틴 가이테(Carmen Martín Gaité, 1925-2000)는 유년기에 내전을 경험한 ‘1950년대 세대(la generación del Medio Siglo)’의 일원으로서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로 인한 역사적 트라우마는 작가의 일생을 지배하는 깊은 상흔으로 각인된다. 프랑코이즘이라는 과거의 유령은 프랑코 사후에도 끊임없이 현재적 과거로 출몰한다. 상흔으로 얼룩진 과거 역사의 질곡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마르틴 가이테는 1950년대 네오리얼리즘에서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서사를 아우르며 내전과 프랑코 독재의 역사적 상흔을 작가 고유의 미학적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1950-1960년대 작품에서는 내전과 프랑코 독재의 트라우마로 분열되는 주체를 형상화하며, 1970-1980년대 작품에서는 트라우마 기억을 서사 기억화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대화치료의 가능성을, 이후 1990년대 작품에서는 ‘생활 글쓰기(life-writing)’를 통한 글쓰기 치료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¹⁾

1990년대 작품의 대다수 인물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삶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채 고립되어 살아간다. 이들은 ‘생활 글쓰기’를 통해 개인 내면의 실존적 고민에 천착하며 삶 전체를 통찰하는 치유의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된다. 트라우마 치유의 최종 단계는 공동체 성원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며 트라우마로 인해 상실된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다(허먼 2012,

1) 1958년 발표된 소설 『커튼 사이로 *Entre visillos*』에서는 프랑코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속박과 억압에 의해 왜곡되는 여성의 주체성 형성 과정이 다루어진다. 1962년 출간된 소설 『느린 리듬 *Ritmo lento*』에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파열음을 일으키는 스페인 근대 사회 구조에서 소외되는 병리적 주체의 트라우마 양상이 제시된다. 프랑코 근대화의 동질적 리듬에서 이탈하는 개인이 체제에서 소외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1970-1980년대 작품에서는 프랑코 사후 프랑코의 신화화한 역사에 의해 억압된 기억을 재구성하며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문제가 다루어진다. 1978년 발표된 소설 『뒷방 *El cuarto de atrás*』은 자전적 주인공을 중심으로 프랑코 체제의 공적 역사에 의해 억압된 기억 회복 과정과 프랑코 체제하에서 신화화한 역사의 탈신화 과정이 논의된다. 특히 이 시기는 작가가 작품 집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는 ‘이상적 대화자’ 탐색이 본격화되면서 프랑코 체제하에서 억압된 트라우마가 사후적으로 발현되는 양상과 기억 재구성을 통한 치유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197). 비평가 칼비는 1990년대 마르틴 가이테 글쓰기의 대표적 글쓰기 기법인 ‘생활 글쓰기’를 “독자 개인에게 작가의 내면세계를 탐색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독자가 스스로 본인의 내밀한 삶을 인식하게 한다”고 평가하며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통한 치유의 기능을 강조한다(Calvi 2007, 223). ‘생활 글쓰기’는 삶 자체를 하나의 주제로 인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지칭한다(Smith and Waston 2001, 3). 특히 여성의 ‘생활 글쓰기’는 여성이 객체에서 주체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전복성을 지닌다(Blanco López de Lerma 2013, 199).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창작가가 되어 자신 고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음으로써 주체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틴 가이테는 1960년대부터 스페인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모성, 모녀 간의 갈등, 가정 문제 등을 비망록에 기록한 후, 일기와 함께 재구성하여 『모든 것들의 공책 *Cuadernos de todo*』(2002)으로 출간하는데, 1990년대 대다수 작품의 모티브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변화하는 구름 *Nubosidad variable*』(1992), 『눈의 여왕 *La Reina de las nieves*』(1994), 『인생은 낯선 것 *Lo raro es vivir*』(1996), 『새로운 출발 *Irse de casa*』(1998) 등이 이 시기 대표적 소설이다. ‘생활 글쓰기’ 형식을 따르는 소설 창작은 작가 스스로에게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 된다. 1978년 어머니의 죽음 이후 비망록에 기록한 어머니에 관한 꿈 모티브는 다양한 작품에서 형상화되는데, 마르틴 가이테는 글쓰기를 통해 어머니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한다. 특히 딸 마르타의 죽음 이후 미국에서 교환교수로 머물며 기록한 비망록에서서 중심 소재로 등장하는 모녀관계 모티브는 1990년대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마르틴 가이테는 이 시기를 ‘삶을 향해 전진한다는 것의 의미가 손에 펜을 들고 글을 써내려가는 것,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무기력한 시간이 마법처럼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시간’이라고 언급하며 글쓰기의 치유적 기능을 강조한다(Teruel 2006, 145).

본고에서는 1992년 출간된 소설 『변화하는 구름』²⁾을 중심으로 ‘생활 글쓰기’를 통한 문학치료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치료학은 문학이 인간의

2) Carmen Martín Gaité(2010), *Nubosidad variable*, Barcelona: Anagrama.

실존성을 다룬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학과 인간은 동일시되며, 일반적 서사 이론에서 문학 서사가 담화 차원에 머물렀다면 문학 치료에서 작품 서사는 삶을 구성하는 자기 서사와 조응하게 된다. 1990년대 이전 작품에서 주로 단일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치유 문제가 논의되었다면, 이 작품에서는 두 여성 주인공, 소피아와 마리아나의 치유가 상호주관적 관계 속에서 대등하게 제시된다. 두 주인공의 치유는 직접적인 상담 방식 대신, 일기와 편지, 문학작품을 우회적인 매개로 하여 진행된다. 본고에서는 두 주인공의 트라우마의 양상을 살펴본 후 편지와 일기를 통한 저널치료 기법과 문학 텍스트를 통한 독서치료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기존의 정신분석 치료가 과거의 심리적 외상으로부터 현재의 병증의 원인을 추적하여 해석하는 환원주의적 방식을 따르기에 한계를 지닌다면, 이 작품에서는 삶과 문학이 공명하는 방식을 통한 문학치료의 가능성이 제시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문학 작품 서사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자기 서사를 조정, 변형, 통합하며, 문학과 인간의 삶이 공명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프랑코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잠행성 트라우마

소설 『변화하는 구름』은 두 중년 여성, 소피아 몬탈보와 마리아나 레온이 그 레고리오 테르메스의 미술 전시회에서 30여년 만에 재회한 후, 글쓰기를 통해 상실된 우정을 회복하며 개인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작품 초반에 등장하는 소피아의 고독과 불행은 세계화, 근대화에 의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여전히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프랑코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부터 기인한다. 여성에게 ‘가정의 천사’ 역할을 강요하며 동질성³⁾을 강요한 가부장제의 잔재가 프랑코 사후에도 트라우마로 남아 가정에 사후적으로 발현된다

3) 호세 후라도 모랄레스(José Jurado Morales)는 전후기에 프랑코이즘이 개인에게 동질화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요구하므로 개인은 저항 혹은 복종이라는 두 선택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José Jurado Morales(2003), *La trayectoria narrativa de Carmen Martín Gaité*, pp. 429-436.

고 할 수 있다.

마르틴 가이테는 작품 세계 전반을 통해 프랑코의 가부장제가 여성의 삶에 ‘잠행성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발현되는 양상과 치유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단일한 한 사건이 트라우마를 초래한다는 일반적인 트라우마 정의에서 벗어나 여성의 삶 일생을 전반적으로 억압하는 만성적인 트라우마, ‘잠행성 트라우마’에 주목한 것이다.⁴⁾ 주디스 허먼에 의하면 여성이 경험하는 만성적인 트라우마의 속박은 감옥, 강제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속박 이상의 심리적 상흔을 남긴다. 이러한 속박과 외상의 변증법 속에서 개인의 내적 표상은 왜곡되며,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애착과 의미체계에 손상을 가져온다(허먼 2012, 134).

소피아의 경우, 외양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과 세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로 보이지만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주위 사람들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지낸다. 남편 에두아르도는 사회적 성공을 우선시하기에 저명인사들과의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즐기며, 사회적 성공의 기준으로 간주되는 화려한 집을 꾸미기 위해 모든 신경을 쏟는다. 작품 첫 장에서 소피아는 에두아르도가 무리하게 화장실을 개조하려고 하는 까닭에 아래층 이웃과 배관 누수로 인해 다투는 상황을 상세히 서술한다. 벽의 습기로 설 새 없이 들락거리는 배관공과 불만을 표출하는 이웃 여자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소피아 부부와 우연히 승강기에서 마주친 이웃과의 대화는 소피아 부부의 문제점을 잘 드러낸다.⁵⁾

4) 1980년 미국정신의학회의 진단 편람에 처음 등재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적인 인간의 경험 범주를 넘어서는 사건”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여성의 삶에 만성적으로 작용하는 트라우마로 그 범위가 확장된다.

5) “승강기에서 아랫집 남편이 에두아르도에게 ‘당신들은 에스코리알 수도원을 건축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묻는다. 비록 아랫집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에두아르도는 불편한 내색을 했지만, 솔직히 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웃집 남편 말에 나는 동의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배관공들의 작업, 폐자재 철거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신경 쇠약증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에두아르도 앞에서 감히 웃을 수도 없었다”(14).

에두아르도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면증 약을 정확히 복용하지 않는 탓이라며 아내의 부주의함을 탓한다. 오로지 재산 증식과 사회적인 명예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과의 대화는 돈에 관한 것뿐이다. 또한 에두아르도는 세 자녀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등 아버지의 존재는 가정에서 부재하게 된다.⁶⁾

비평가 오로페사는 스페인의 1980년대 시기를 ‘탐욕의 10년(la década de la codicia)’으로 명명한다(Oropesa 1995, 55). 급속히 경제 성장을 이루는 시기에 단기간에 부를 축적하며 등장하는 ‘줄부(pelotazo)’에 해당된다. 1960년대 스페인 사회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자본적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하여 개인이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었듯이,⁷⁾ 이 시기 자본주의, 물질주의의 가치관은 가정의 탈기능화를 초래한다. 대다수의 남성은 경제적 능력을 통해 삶 전체를 혁신하기를 원하는데 여성도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물질적 소유물로 인식한다. 나이 많은 아내 대신 아름답고 젊은 여성에 대한 소유욕이 포함된다. 한편, 가정주부로서 여성은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하녀에게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맡긴 채 미용실에서 외양을 꾸미며 남편이 불러주지만 기다리는 의존적 주체로 나타난다. 작품에서 에두아르도는 단기간에 부를 축적하고 소비문화의 시류를 좇으며 물질주의적 풍요를 추구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화장실까지도 부의 상징으로 여겨 최신식 스타일로 꾸미기 위해 유명한 건축가 친구인 그레고리오 테르메스에게 수리를 맡긴다.

소피아는 프랑코 체제가 여성에게 강요한 ‘가정의 천사’ 역할에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⁸⁾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여성이 투자하는 모든 시간을 죽

6) “항상 그가 계획하는 일들 때문인지,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헤어 스타일 때문인지, 혹은 돈에 관련된 문제에는 어떤 균열도 허락하지 않는 벽과 같은 존재서인지 모르겠다. 아이들은 에두아르도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확실한 건 아이들에게 에두아르도는 관심 밖이었다는 사실이다”(15).

7) 프랑코는 1960년대에 기술 관료를 기용하여 자유 경제 체제를 이루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프랑코 신화는 스페인인들의 정신세계를 여전히 지배했기에 스페인은 바로크적 현실, 물질주의와 극단적 신정 정치가 공존하는 현실에 놓인다.

은 시간, “내 모든 삶의 부패한 시간, 현실의 난관들을 피하기 위해 소비한 시간”(116)으로 서술한다. 소피아의 가정은 카이 에릭슨이 언급한 사회적 기본 체계의 손상⁸⁾의 전형으로, 프랑코가 강요한 가부장적 권위에 의해 탈기능화한 공간으로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작품에서 마르틴 가이테는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 모성, 모녀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데, 특히 모녀관계는 여성의 유대관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랑코이즘이 이상적인 모성상으로 제시한 어머니 모델은 딸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다. 따라서 이후 딸이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결국 어머니에 관해 느끼는 애증병존의 양가감정과 모성 자체에 대한 거부는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고 심각한 세대 간의 소통 단절 문제를 야기한다. 마르틴 가이테는 『전후 스페인의 연애 풍속 *Usos amorosos de la posguerra española*』(1987)에서 “모든 스페인의 어머니들은 결코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녀들 역시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세대 간의 소통의 단절을 우려한다(Martín Gaité 1996, 10). 결국 프랑코에 의해 신화화한 모성 담론을 탈신화하여 어머니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시도하는 것이 단절된 세대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소피아 역시 딸과의 모녀관계 회복이 관건이다. 이 과정은 유예되었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병행되어 진행된다. 소피아의 어머니는 프랑코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채, 딸에게 가부장적 권력을 행사하는 어머니

8) “상류계층 가정의 아내 역할을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 웃음 뒤에 피곤함을 감추어야 하고 대화중에 지휘봉 없이 지휘를 해야 하며, 음식을 나르고, 남편이 초대된 손님들 앞에서 ‘아름다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전형적 찬사를 보낼 때 그것만으로도 그 동안의 고된 일들을 보상받는다는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73).

9) 카이 에릭슨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이나 국가도 트라우마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 트라우마가 내적 방어 체계의 손상을 의미한다면, 집단 트라우마는 사회적 기본 체계의 손상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집단 트라우마는 사회 성원들 간의 유대 단절, 공동체 의식 손상의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상처입은 ‘나’, 분리된 ‘너’의 존재는 유지되지만 더 이상 공동체 구성 기본 단위로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ai Erikson, “Notes on Trauma and Community”, Cathy Caruth(1995), *op.cit.*, 187.

였다. 소피아는 엄격한 가부장적 규범으로 자신을 훈육했던 어머니와 늘 대립했고 특히 연애편지의 내용까지 검열하던 어머니에게 분노하게 된다.¹⁰⁾ 결국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어머니에 대한 반감은 지속되고 어머니 죽음에 대한 애도는 유예된다.

그러나 글쓰기를 시작하며 자신 역시 딸, 엔카르나에게 가부장적 규범을 강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엔카르나가 남자 친구와 전화하는 내용을 엿듣는 등 무의식적으로 가부장적 규범을 체화하고 있음을 깨닫고 어머니에 대한 애도를 시작하게 된다. 꿈 속에서 어머니의 육체로 변화하는 체험을 한 이후에 어머니 또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결국 어머니와의 불완전한 관계에서 형성된 근원적 멜랑콜리는 소피아에게 불안정한 내적 표상을 지니게 하였으며 딸의 세대와 단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프랑코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잠행성 트라우마는 가정 울타리 내부에서만 발현되는가. 소피아와 달리 독신인 마리아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정신과 의사이다. 소피아와 대조적으로 그녀는 이성적이며 합리적이고 자기 존중감이 강한 여성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외관상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공한 삶을 누리는 듯해 보이지만 타인과 진정한 유대관계를 맺지 못한다. 마리아나의 불행은 분석가로서 분석자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는 소통 부재로부터 기인한다. 마리아나에게 상담실은 소통이 부재하는 두려움의 공간으로 제시된다.

통로에서 직접 발코니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늑대의 입’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 공간은 너에게 아무리 좋게 묘사한다 해도 종종 공포영화처럼 느껴지는 곳이다. 무슨 이유로 너한테 그 사실을 부인하겠는가. 그곳이 내가 진료하는 곳이다. 그곳을 꾸미기 위해 여러 차례 고민했다. 아늑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했다. 환자들은 내키지 않으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10) “어머니가 기에르모의 편지를 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나는 어머니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깨달았다. 나에게 여전히 어머니를 용서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39).

그렇게 나는 그들에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22)

소피아에게 가정이 닫힌 공간이 되어 우울증을 유발하고 남편, 이웃과의 불화의 원인이듯, 마리아나에게 진료실 역시 진정한 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닫힌 공간으로 작용한다(Womack and Wood 2011, 142). ‘늑대의 입’이라 불리는 공간에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스러운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들을 기만하며 시간과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언급된다. 무엇보다 마리아나는 불분명한 치료 경계를 설정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작가인 라이문도와 사랑에 빠져 환자의 감정에 지배되는 역전이 상태에 놓인다. 라이문도의 경제적 도움으로 아파트를 얻어 함께 지내지만 지옥과 같은 위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동성에 취향을 지닌 라이문도는 결국 마리아나가 원하는 애정을 주지 않은 채 갈등을 유발하며, 결국 자살을 시도해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마리아나의 환자인 실비아는 라이문도의 과거 연인으로서 실비아와의 관계에서 사적 감정이 치료에 개입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마리아나는 외양상 독립적 여성으로 제시되지만 여전히 남자의 사랑과 보호를 갈구하며 독립적인 주체로 거듭나지 못한다. 대학 시절 기예르모를 사이에 두고 소피아와 연적 관계가 된 후 사랑, 결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채 내적 갈등을 겪는다.

초자아에 의해 자아가 억압된 채 감정보다는 이성이 지배하는 삶을 추구하지만 자아가 분열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강력한 초자아의 출현은 학창시절, 소피아가 기예르모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 훌리아 로드리고로부터 우연히 듣게 되는 상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¹¹⁾ 과거에 소피아는 결혼을 선택하며 학업을 중단하지만 자신은 그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도 강박적으

11) “즉시 내게 냉혹한 조련사와 같은 초자아가 출현했다. 표정을 긴장시킨 채 목소리를 떨지 말도록 명령했다. [...] 그래서 그녀에게 대답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 소피아가 이야기 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소피아가 지나치게 진지해서 시험 기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25).

로 학업을 지속했다고 이야기한다.¹²⁾ 마리아나의 내적 갈등은 ‘의사 레온’과 ‘마리아나’의 대립 구도로 묘사된다.¹³⁾ 정신과 의사로서 합리적인 분석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병증을 논리적인 언어로 해석하려 하지만 정신 분석 치료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비평가 누리아 크루즈 카마라는 정신과 의사로서 마리아나의 실패 원인은 초기 프로이트 정신분석 방식이 요구하는 이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분석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평한다(Cruz-Cámara 2008, 68). 해부학적 합리성, 객관적 분류에 기반한 정신분석 치료의 한계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마리아나는 남성에 대한 불신,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본능과 감성을 억누르며 이성과 합리적 분석을 따르는 강인한 여성, ‘의사 레온’을 선택하지만 마리아나 자신 본연의 모습을 억압했기에 또 다른 형식의 가부장적 억압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¹⁴⁾

III. 문학치료

1. 저널치료: 공감에 기반한 ‘이상적 대화자’ 탐색

작품의 첫 부분은 소피아의 글로 시작된다.¹⁵⁾ 봄의 시작을 알리면서 과거에 마리아나와 경험한 젊음의 활력을 상징하는 꿈 이야기를 서술한다. 마리아나와 재회하기 전날 밤 꾸게 되는 꿈, 즉 폭발에 누워 마리아나와 함께 구름의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꿈은 일종의 ‘소원성취’적 꿈에 해당된다. 마리아나와의 만남만이 악몽과 같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구출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소

12) “너도 알듯이 나는 결정할 때 매우 단호해서 그 때 맹목적으로 나의 조련사가 기에 르모, 나, 둘러싼 상황,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응하기로 결정했지. 학업을 지속할 것을 명령했기에 커피, 각성제를 먹으며 공부했어”(27).

13) “하지만 학회를 참석하거나 텔레비전에 출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 볼 때면 그 여자, ‘의사 레온’이 너와 함께 변화하는 구름을 바라보던 마리아나를 집어 삼켜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녀와 지내는 시간은 지긋지긋하다”(26).

14) Cruz-Cámara(2008), *op.cit.*, 63. 크루즈 카마라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 공감을 중심으로 한 치유 담론을 제시한다.

15) “어제, 두 달간의 변화무쌍한 날씨와 소나기가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오기 시작했다. 창문 밖에 맺히는 빗방울을 느낄 수 있었다”(1).

망이 발현된 것이다.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한 문학소녀, 소피아는 결혼 이후 작가의 꿈을 포기하였다. 독서에만 몰두하며 문학 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채 우울증을 겪는 이유는 글쓰기의 중단에 있다. 트라우마는 캐시 캐루스에 의해 ‘주체화되지 않는 경험’으로 정의된다. 즉 트라우마 주체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자신의 고유 경험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라우마 기억은 기존의 경험과 의미망을 형성하는 서사적 기억과 상이하게 기존의 의미 체계와 연결망을 형성하지 못한 채 파편화된다. 이러한 결과로 다양한 신체적 증상, 플래시백, 악몽 등의 형태가 반복된다(Caruth 1995, 17).

소피아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언어화하지 못하고 병리적 콤플렉스를 형성한 채, 학창 시절 마리아나와 함께 읽던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폭풍의 언덕』을 반복해서 읽으며 과거에 고착되는 것이다. ‘이상적 대화자’의 출현을 꿈꾸지만 남편, 세 자녀, 하녀 다리아, 심리 상담사 그 누구와도 ‘이상적 대화자’ 관계를 맺지 못한다. 마리아나는 생기를 잃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소피아의 상태를 걱정하며, 불면증 치료를 위해 로라멧 약과 함께 글쓰기 숙제 처방을 내린다.

문학치료는 독서치료(Biblio Therapy)에 글쓰기 치료(Poetry Therapy)가 결합된 형태로 문학 매체를 심리 치료에 활용하는 일종의 표현예술치료이다(Hynes and Berry 1994, 9). 치료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저널쓰기는 대표적으로 ‘인물묘사’, ‘대화’, ‘의식의 흐름’, ‘관점의 변화’, ‘보내지 않는 편지’ 방식을 따르게 된다(애덤스 1990, 71-72). 이러한 종류의 글쓰기는 자신의 기분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자신의 글을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에게 쓰는 글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신의 보다 깊은 내면의 심정을 확인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자아발견의 글쓰기 특성을 지닌다.

1) ‘관점의 변화’ 기법

작품 3장, ‘각테일 모임의 사람들’ 부분에서 소피아의 일기는 ‘관점의 변화’, 기법 양식으로 구성된다. 소피아에게 인생은 마치 조각난 거울 조각을 조합해 하나의 의미를 생성하는 것과 같으므로 콜라주 서사기법으로 과거 기억을 재구성한다. 소피아가 집에서 유일하게 안식을 취하는 공간은 아직 개조되지 않

은 채 남아있는 딸 아멜리아의 방이다. 아멜리아의 방에서 노트에 콜라주 기법으로 과거를 재구성할 때 승무원인 아멜리아가 예고도 없이 들어오게 된다. 아멜리아는 노트 한 가운데의 토끼의 의미를 묻자 소피아는 언제 어디서 출현할지 모르는 산토끼는 놀라움을 상징한다고 대답한다. 이윽고 콜라주 기법처럼 사건은 외부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정돈되지 않은 것들이 비로소 정돈되며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의미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즉 모든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관점의 변화’ 기법으로 소피아는 가장 먼저 어머니로서 가정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죽은 어머니의 입장을 반추하게 된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자 친구와 몰래 통화를 하는 딸을 감시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 자신 역시 자신이 중요하던 죽은 어머니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비로소 과거에 자신은 가정에서 타인이 원하는 상을 비추는 단순한 거울 역할을 했음을 알게 된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방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¹⁶⁾ 성인이 된 소피아는 더 이상 아멜리아에게 거울 기능을 하지 않으며, 자신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꺼리는 딸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7장, ‘다리아와의 대화’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콜라주 기법을 통해 과거 기억이 재구성된다.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파편화된 과거 기억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소피아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쓴 일기, 연애편지, 할머니의 편지 등, 현재 발화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통해 과거 기억을 재구성하며 재해석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재해석되며 총체적 의미로 파악할 수 없는 파편화한 사건들이 하나의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¹⁷⁾

16) “엄마, 로렌소가 한 짓을 좀 보세요”, “누가 오렌지 마멀레이드 병을 깨뜨렸지?”, “제가 하지 않았어요.” “이 공책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요.” 나는 그들 모두에게 전신을 비추는 일종의 거울이었다. 아이들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이미지를 되돌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40-41).

17) 기억 재구성의 중요성은 마르틴 가이테가 명사 ‘회상’과 동사 ‘이야기하다’의 개념을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치유를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트라우마 경험은 정상적인 의식 흐름에서 이탈한다. 따라서 기억 체계로부터 해리된 것을 복원하다고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을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타인에게 새롭게 재 맥락화해야 치유가 발생한다고 한다(Van del Kolk and Fisler 1995, 521).

소피아는 침실에서 옛 메모를 찾으며 서랍 속에 보관된 기억의 파편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동안 보관해 온 자격증, 영수증, 은행 고지서, 청구서, 신문 기사, 벌금 고지서 등을 발견하며 본인의 강박증을 인식한다. 또한 자신은 현실에 거주하는 것을 거부하며 문학과 상상의 세계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소피아를 진료하는 정신과 의사는 이러한 소피아의 상황을 ‘비현실의 거주’로 칭했고, 남편 에두아르도는 그런 자신을 늘 비난해왔다고 말한다(113).

하지만 방금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이지만 삶의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이 변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삶에 대한 의지는 글쓰기 의지로 시작된다. 서랍 속에 보관된 과거 자료 가운데 파란색 표지의 책 사이에서 머리를 뚫은 소녀 사진을 발견하며 학창시절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떠올린다.

그녀는 단어를 창조하고, 처음 듣는 단어를 해체하는 것을 좋아했다. 다양한 조합으로 분리, 합체한다. [...] 긴 단어는 치마, 조끼와 비슷하다. 치마에 조끼를 입히고 반대로 바뀔 입히기도 한다. [...] 페드로 라로케 문학 과목 선생님은 나비 사냥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가장 전전한 놀이 중 하나이다. 단어를 잡아 그것과 함께 노는 것이다. 혹은 그것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단어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114)

대비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의 고독한 회상 작업에는 서사적 층위가 존재하는데, 이 층위는 문학적 창작과 유사한 맥락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억 선별 작업 과정에서 과거사건은 단순히 회상되는 것이 아니며, 작가는 파편화된 기억 조각들을 재구성하는 독특한 미학적 방식을 좇아 끊임없이 ‘완벽한 이야기꾼’을 꿈꾸게 된다고 한다. Carmen Martín Gaité(1982), *La búsqueda del interlocutor y otras búsquedas*, pp. 23-24.

반면 소피아가 가장 싫어한 과목은 수학이었다. 수학의 대수는 리듬 없는 단어이며 날개 없는 단어였다고 회상한다. 이윽고 자신이 가장 싫어한 수학과목처럼 결혼생활도 지옥이었음을 반추하게 된다.

선택이 아니었다. 한 가정의 딸로서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약혼, 결혼, 출산, 부드러운 외양으로 가장한 채 구석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정에서 그렇게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어머니상, 이 역할은 가장 어렵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치 수학 대수 문제와 비슷하다. 때때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또 그것을 왜 풀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116)

하지만 이내 몸의 경련을 느끼며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 순간 들어온 다리아의 도움으로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는다. 다리아가 침실 바닥에 널려있는 물건들을 치우려 하자 소피아는 소리를 지르며 정리하지 말도록 요구한다. 본인의 병증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다. 마리아나를 직접 만나기 위해 전화를 하지만 응답기를 통해 마리아나의 부재 상태를 알리는 차가운 음성만 듣게 된다. 소피아는 자신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에 상담을 원한다고 메시지를 남긴다. 하지만 이내 마리아나가 비록 여행 중이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평온을 되찾는다.

2) ‘보내지 않는 편지’ 기법

마리아나는 소피아와 재회한 이후 “비록 소피아, 너에게 편지를 쓴지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항상 함께 같이 했던 그 글쓰기 의례를 나는 결코 잊은 적이 없어”(20)라고 이야기한다. 이들에게 글쓰기는 신성한 의례였던 것이다. 마리아나는 편지글로 소피아와 소통하기로 결정한다.¹⁸⁾ 그러나 마리아나의 편지 역시 한 통을 제외하고 소피아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내지 않는 편지’

18) “처음에는 소피아, 네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하지만 이내 우리가 닫고 있는 바닥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내 생각에는 편지 형식이 안전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깨어야 할 조각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걸 알았어”(23).

는 저널 글쓰기 기법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 역사에서 치료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해석을 중시한 정신분석학자들은 해석에 이르기 위해 공감의 도구로 필요함을 주장하며 공감적 상담관계를 통해 내담자가 해석을 수용할 때 해석의 가치가 생긴다고 한다. 반면 공감적 관계에 주목한 정신분석학자들은 해석이 공감의 다른 이름이라고 설명하며 해석의 목적은 내담자에게 공감적 반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Gabbard 2004, 64).¹⁹⁾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관계, 즉 공감에 바탕한 새로운 대상관계 경험이 치료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한다(Kohut 1977, 281).²⁰⁾

마리아나의 내적 자기 분열을 치료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공감에 기초한 새로운 대상관계와의 경험이다. 치료는 해석을 통한 의식적 통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한 공감적 반응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마리아나의 보내지 않는 편지는 영혼의 글로서 기존의 학문적인 글과 달리 글쓰기의 즐거움을 깨닫게 한다.²¹⁾

상호주관적 정신분석학자에게 공감은 해석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경우 언어화를 통해 만족되는 공감이 아니라 적절한 좌절(optimal frustration)을 경험하며 겪는 공감이라는 것이다(Kohut 1984, 99). 마리아나의 바쁜 일상은 ‘공감적 침잠’을 방해했기에 편지를 쓰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는 마드리드를 떠나는 것이었다.²²⁾ 또한 이들이 서로에게 일기와 보내

19) 장정은(2016),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본 문학치료의 효용」, 『문학치료연구』, Vol. 40, pp. 10에서 재인용.

20) Ibid. 15에서 재인용.

21) “나에게 학문을 위한 글이 아닌, 아무런 목적도 없는 편지글, 수정할 필요도 없고, 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글, 즉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야”(20). “소피아 네가 보낸 두툽한 편지봉투에 쓰인 네 글씨를 보았을 때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잊었던 것과 나의 젊음을 돌려준다는 사실을 비로소 나는 알게 되었어”(29).

22) “유일하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설 틈 없이 일정표를 검토하는 것, 나 자신만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왜 참지 못하는냐고 나에게 질문할 시간도 없다는 사실이야”(87).

지 않는 편지 형식으로 글쓰기를 지속하는 상태 역시 상호 ‘불가피한 좌절’에 기반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리아나는 자살을 시도한 라이문도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자 퇴원 수속을 돕고 함께 라이문도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의사 레온을 잇고, 낭만소설 주인공처럼 전화도 시계도 보지 않은 채 라이문도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여전히 라이문도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던 중, 자신 외의 또 다른 여자를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라이문도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다. 본인 역시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푸에르토 레알에 있는 실비아의 별장으로 도피한다. 하지만 라이문도의 옛 연인인 실비아로부터 라이문도에 관한 소식을 계속 듣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미혼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스스로 떨쳐 버리지 못한 채 옛 애인과의 재회를 꿈꾸는 등 홀로서기에 실패한다. 하지만 호텔로 거주지를 옮기며 진정한 고독에 직면한 이후 비로소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를 시도한다. 새로운 글쓰기는 마리아나에게 소피아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한다.²³⁾ 합리적 분석을 토대로 한 에로티즘에 관한 전공 관련 책 집필을 포기하고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시적 텍스트를 구상하기로 결정하게 된다.²⁴⁾

이상에서 살펴본바듯이 두 인물의 치료과정은 외관상 정신분석적 내러티브의 전형을 따르는 듯하다. 마리아나는 소피아에게 글쓰기 치료를 처방하고, 소피아는 꿈, 자유 연상, 카타르시스적 자기 인식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한다. 이는 전형적인 정신분석적 요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소피아의 치유 과정은 고전주의 정신분석학적 내러티브의 전형, 즉 현재 병증을 과거의 심리적 외상으로 부터 추적하고 그 결과물로 현재의 병증을 해석하는 담론을 따르는 것인가.

23) “나는 항상 너를 부러워했어.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그 부분을. 너에겐 삶과 문학 사이의 벽이 없어서 구름에 있는 듯 했어. 너를 진심으로 부러워해서 너를 모방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결코 나는 너처럼 잘 할 수 없었어. 정확히 말하자면 화가 났어. 너는 날 수가 있는데 나는 날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야”(183).

24) “아마도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소설과 같이 모든 모순을 허용하는 시적 텍스트를 쓰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과도한 정신분석은 그만 하기로 했어”(193).

전술했듯이 마리아나는 초기 프로이트의 고전적 정신분석 담론을 기초로 분석치료를 진행해 왔다. 객관적 사실 분석을 기초로 병증을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이성의 언어로 해석하고자 했지만 분석치료에 한계를 느끼며 회의감을 표명했다. 따라서 이들의 글쓰기는 ‘해석’이 아닌 ‘공감’에 기반한 대상관계를 추구하며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기억 재구성 과정은 프로이트의 후기 이론, 트라우마의 ‘사후성’ 원리에 기반한다. 즉 트라우마 경험, 기억 흔적 등 1차 사건은 사후에 발생하는 2차 사건에 의해 소급적 의미를 부여 받게 된다. 따라서 과거는 현재와 미래에 의해 소급되어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과거 사건은 사건 자체의 병리적 성격에 의해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지만 주로 현재의 서사 담론, 이데올로기, 언술 등에 의해 트라우마가 된다. 그러므로 심리적 외상은 병인(病因)이 아니라 증상 발현 이후 시간을 소급하여 의미가 부여되는 서사화 작업의 결과물에 해당된다.

마르틴 가이테는 트라우마가 사후적으로 발현되는 시점에서 트라우마 주체가 경험하는 치유의 문제에 천착한다. 이런 맥락에서 심리적 외상과 병증을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환원적인 정신분석 내러티브에서 벗어나 트라우마 주체의 현재 시점에서의 다층적 심리 상태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트라우마 기억을 서사 기억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이상적 대화자’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2. 독서치료: ‘작품 서사’와 ‘자기 서사’의 공명

이상에서 논의하였듯이, 마리아나와 소피아의 편지와 일기가 대다수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후 소피아의 저널 세 권과 마리아나의 편지들이 소설로 엮어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글쓰기는 일반적 서간체 글쓰기와 다르다. 그렇다면 발신인으로만 기능하는 ‘이상적 대화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마르틴 가이테는 작품 집필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로 ‘이상적 대화자’를 강조하며 작품 세계 전반을 통해 ‘이상적 대화자’의 탐색을 추구한다. 마르틴 가이테에 따르면 ‘이상적 대화자’의 탐색은 다음 세 단계의 변화를 따르게 된다. 첫

단계에서 화자는 ‘유아적인 자기중심적(egocentrismo infantil)’ 갈망 상태에 머무른다. 이 단계에서 화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를 요구하는데, 이때의 대화자는 수동적인 대화자이자 외부적 청자로 기능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화자는 자신의 서사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이상적 대화자’를 탐색하지만 ‘즉각적인 대화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절망 상태에 놓이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화자는 ‘유아적인 자기중심적’ 특성과 ‘즉각적 대화자’ 부재로 인한 환멸을 극복하고 평온함 속에서 인내로 ‘이상적 대화자’를 기다리게 된다.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야 화자는 고독과 대면하여 미래에 자신의 서사에 동참할 진정한 ‘이상적 대화자’를 기다리며 자신을 위해 서사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한다(Martín Gaité 1989, 135-140).

작품에서 소피아와 마리아나가 재회하기 이전 상태는 ‘유아적인 자기중심적’ 갈망 상태이며, 재회 이후는 ‘이상적 대화자’의 발견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직접적 접촉이 없으므로 ‘즉각적 대화자’의 부재 상태에 머무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위의 세 번째 단계에서, ‘즉각적 대화자’의 부재로 인해 초래되는 절망상태를 스스로 극복한다. 고독을 회피하지 않고 미래에 자신의 서사에 동참할 대화자를 기다리며 글쓰기를 수행하며, 그 결과물로 소설을 창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적 대화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할은 무엇인가. 전술했듯이 마리아나가 꿈꾸는 ‘이상적 대화자’는 임상에서 본인이 시도했던 초기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 강조하는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분석가가 아니다. 분석과 해석이라는 인지적 기능보다는 정서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적 대화자’를 꿈꾼다. 즉 과거 회상 단계에서 수반되는 정동(affect)을 성공적으로 환기시키도록 유도하며 ‘정동 소산’ 과정을 통해 재 트라우마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²⁵⁾ 이 과정에서 ‘이상적 대화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인지적 해석 능

25) 라캉 연구가인 핑크에 의하면 트라우마는 언어로 서술되는 동시에 세밀한 사건 서술 과정에서 언어로 정동을 표현하면 분석의 인지적 기능과 함께 정서적 기능, 즉 ‘정동 소산(消散)’이 발생한다. Bruce Fink(1995), *The Lacanian Subject: Between Language and Jouissance*, 28.

력이 아닌 정서적 공감 능력이다. 소피아는 마리아나의 도움으로 단절된 모녀 관계를 회복하며 ‘이상적 대화자’ 엔카르나를 발견하게 된다.

한편, 공감은 ‘이상적 대화자’ 뿐 아니라 두 주인공과 문학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문학치료는 인간의 활동 자체가 문학이며 동시에 인간 자체가 문학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정운채 2008, 248). 문학작품의 근원을 이루는 서사는 작품 서사가 되고 인생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서사는 자기 서사인테, 문학치료는 작품 서사가 자기 서사에 영향을 미쳐 치료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작품 서사를 통해 자기 서사가 수정되려면 작품과 인간 간에도 공감과정, 일종의 공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정운채 2012, 376).

이제 문학 작품 서사와 삶의 자기 서사가 공명을 일으키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피아와 마리아나는 작품 서사를 통해 각자의 자기 서사를 진단하고 변화, 수정하며 치유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첫 번째 단계로 초반에는 문학 작품 서사가 건강하지 못한 자기서사와 공명을 일으키지 못한 채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기능한다.²⁶⁾ 소피아에게 문학작품은 에두아르도와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유일하게 안식을 찾을 수 있는 도피처로 제시된다. 소피아는 수안세스에서 남편과 시누이와 함께 보낸 여름을 고통의 시기로 묘사하며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²⁷⁾ 이 시기는 건강하지 못한 소피아의 자기 서사로 인해 작품 서사와 공명을 일으키지 못한 채 문학작품을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병약한 자기 서사가 건강한 자기 서사로 변화하는 단계이다. 여름 휴가동안 남편과 동일하게 자본주의 가치관을 지닌 시누이 부부 사이에

26) “두 번이나 서랍을 뒤지다가 양탄자에 앉아 ‘이 장소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말하려 했지?’라고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왜 앉아 있는지 몰랐다. 단지 내가 앉아있는 양탄자가 알라딘의 양탄자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다. 날기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되 뇌이면서. 바로 그 순간 의지의 끈이 재구성되었다. 그렇다. 나는 원했다.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저 창문을 통해 탈출해서 5월의 하늘을 나는 것이다. 변화하는 구름의 메시지가 사라지기 전에”(113).

27) “내가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단지 오랜 시간 계속 잠자는 것이었다. 쥘 베른의 잠수함으로 도피한 밀항자처럼 낯선 이들 속에서 깨어나고 싶었다”(293).

서 고립감을 느낀다.²⁸⁾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만 남편과의 언쟁 만큼 터무니없고 지루한 싸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소피아의 병약한 자기 서사는 모녀관계 회복을 통해 건강한 서사로 변형된다. 큰 딸 엔카르나는 동생 아멜리아를 시샘하며 소피아의 애정을 독차지하려 했다. 밤늦게 지속되는 부모의 언쟁 중에 늘 맨발로 침실 문 앞에 서서 심판관처럼 에두아르도의 잘못을 추궁하며 소피아를 옹호했다. 엔카르나는 부모의 불화로 인한 불안감을 이야기를 통해 극복하기에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소피아를 위로한다. 정원에 난장이가 살고 있으며 어두움이 찾아오면 그들이 나타나 이야기를 해준다는 비밀 이야기를 소피아에게 털어놓는다.

우리는 피터팬과 세헤라자데,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많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은 마치 정원 나무의 화자들이 새벽에 깨어 나뭇가지에 앉아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을 함께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안테르센, 루이스 캐럴, 스티븐슨, 콜로디, 대니얼 디포, 페로, 쥘 베른.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정원에서 매우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른들이 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날 오후 우리의 여름휴가의 강렬한 공모는 시작되었다. 마리아나와 내가 몇 년 전 맺었던 관계처럼. [...] 페드로 라로케 선생님이 호르헤 만리케 시를 읽어 주었을 때처럼. [...] 내 딸은 나에게 상실된 유년이 아니라 새로운 유년을 주었다. 내 딸이 나와 공유하도록 초대한 새로운 유년을.(290)

엔카르나는 자신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지만 소피아를 구출하기 위해 집을 사서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며 소피아의 인생을 이끄는 선장이 되겠다고 이야기한다. 중요한 점은 문학이 인생을 이끄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다.²⁹⁾

28) “남편과 시누이의 연대는 강화되었다. 내가 나타나면 그들은 대화를 중단했다. 점차 그들의 여행, 물건 구입, 차 종류 등에 관한 대화에서 소외되었다”(238).

29) “나는 바다를 보며 울고 있다. 엔카르나는 말한다. 내키지 않지만 어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집을 구입해서 나와 함께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발코니가 있는 바닷가의 작은 집에서 단지 이야기만 필요하다고 한다. 달빛 요정이 저녁마다 올 것이고, 이야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 된다고 말한다. ‘파도가 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앞에서 어머니 손을 잡을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선장이예요’ 라고 이야기한다”(297).

세 번째 단계는 텍스트의 작품 서사를 통해 자기 서사를 변형하는 단계이다. 소피아는 ‘이상적 대화자’ 역할을 하는 엔카르나의 도움으로 가정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엔카르나가 창작한 이야기의 작품 서사는 소피아의 자기 서사를 변형하게 하며,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귀환하지 않는 망명’이라는 글의 주인공, 14세 소년 엘로이는 엔카르나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부모의 불화를 목격하며 부모의 이중적이며 비겁한 태도에 실망한 채, 가족 간의 유대를 끊고 자유를 찾아 집에서 탈출한다. 소피아는 엘로이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의 비겁한 태도를 반성하게 된다. “비록 가족의 유대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돌아올 수 없는 망명임을 알지만 거짓에 대항하기로 결정했다”(304). “세상의 바다로, 미지의 항구를 향해서 아무것도 없이 나를 남겨 놓았다”(299)에서 ‘미지의 항구’의 의미는 쥘 베른의 잠수함으로의 도피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미래와 당당히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해당될 것이다. 소피아는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죽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으로 다시 귀환한다. 그 곳에서 죽은 어머니의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꿈을 꾸게 되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비로소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다. 할머니의 이름을 물려받은 엔카르나는 어머니 세대에서 단절된 모녀간의 유대를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Blanco López de Lerma 2013, 123). ‘이상적 대화자’ 역할을 하는 엔카르나와 소피아, 모녀간의 공감에 기반한 관계 회복과 더불어 문학과 삶의 공명이 치유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한편, 마리아나의 경우 작품의 결말에서 문학작품을 통해 병약한 자기 서사를 치유하게 된다. 10장, ‘어둠의 열쇠’에서 마리아나는 실비아의 별장을 떠나 호텔에 머물며 소피아에게 편지를 쓴다. 마리아나가 마드리드를 떠나 푸에르토 레알 실비아 집으로, 그리고 다시 호텔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은 존재론적 불안 때문이다. 호텔 공간에서 역시 안식을 취하지 못한 채 불안감을 표시한다. 그러나 점차 문학 작품을 통해 자신의 고독과 대면하게 된다. 그 중 캐더린 맨스필드의 일기 작품 서사는 소피아의 자기 서사를 변화시키는 진단 서사로 작용한다.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죽음을 앞둔 저자가 자신과 유사한 내적 분열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작품 서사를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인생 구도에 적용하며 문학치료의 최종단계에 이르게 된다.

‘캐서린 맨스필드 분신 중 한명은 슬프다’라고 그녀는 기록한다. ‘그래서 그녀를 홀로 남겨두는 편이 좋겠다.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라’ 그것이 열쇠이다. 당신의 절망을 살찌우지 않는 것. 소피아, 바로 여기 어둠의 열쇠가 있다. 의사 레온이 나에게 통제하도록 권하는 그 분절된 이미지들 아래, 어둠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179)

시적 글쓰기를 통해 마리아나는 의사 레온과의 형벌과도 같은 공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마리아나 주변 인물들은 마리아나를 차갑고 이성적인 인물로 평가했지만 의사 마리아나의 가면 아래 숨겨진 개인 마리아나는 감성과 본능을 따르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마리아나는 초자아로부터 벗어나 자아를 강화함으로써 문학치료의 목표인 병약한 자아 서사를 건강한 자기 서사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IV. 결론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의 역사적 상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마르틴 가이테는 작품 전반을 통해 트라우마의 치유의 문제에 천착하였다. 마르틴 가이테 트라우마 서사의 가장 큰 특징은 트라우마를 유발한 사건에 관한 원인 규명보다는 트라우마의 사후 발현시 트라우마 주체의 치유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마르틴 가이테는 ‘생활 글쓰기’를 통한 문학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문학치료는 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텍스트에 관한 고착된 해석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 외현화 되지 못한 무의식적 내면상태를 표현하고 자신과 대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이해하고 통찰해야 한다(변학수 2006, 19). 두 주인공은 문학치료, 즉 저널치료와 독서치료 형식으로 병약한 자기 서사를 치유하게 된다. 문학치료는 문학 작품과 인간 사이의 공감, 텍스트의 작품 서사와 인간의 자기 서사가 공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작품 제목에서 암시되듯이, 변화하는 구름 모티브는 변화하는 정체성과 관련되며(O'leary 2008, 136), 두 주인공은 자신과 타인에 관한 고착된 해석을 수정, 변화시켜 나아간다. 두 주인공의 우정을 형상화하는 구름 모티브는 젊은 시절의 순수함과 활력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들의 글쓰기는 단순히 과거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소피아가 개인의 정체성은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므로 해독이 필요한 상형문자라고 비유하며, 마리아나는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는 것처럼 과거의 우정을 새롭게 재조명하며 변화하는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편지와 일기를 중심으로 한 ‘삶의 글쓰기’를 통해 두 주인공은 내밀한 자신의 세계로 침잠하여 트라우마를 관조적으로 성찰할 수 있었다. 가부장적 공간에서 고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없던 두 주인공은 글쓰기를 통해 억압과 속박의 공간에서 벗어나게 되고 병약한 자기 서사를 건강한 자기 서사로 변화시켰다. 문학치료학에서 창작과 치료는 동일한 과정으로 인식된다. 치료가 성공적일 때 창작도 성공적이며, 창작이 성공적일 때 치료가 일어난다(정운채 2013, 419). 따라서 문학치료의 장에서 글을 쓰는 주체는 치료사이며 동시에 독자이자 청자로 존재한다(배영의·김성범 2017, 42). 따라서 작품에서 두 주인공의 치유는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미적 거리감을 두고 다양한 은유나 상징으로 변화하여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마르틴 가이테 자신이 저널에 기반해 작품을 창작하며 치유를 경험하였듯이, 두 주인공은 일기와 편지를 엮어 하나의 소설로 창작하며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다. 작품 서사와 자기 서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소설 창작을 통해 자기 서사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의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두 인물의 자기 서사와 텍스트를 통한 작품 서사가 상호 공명하는 과정이 문학치료를 통해 제시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변학수(2006), 『통합적 문학치료』, 학지사.
배영의·김성범(2017), 「문학치료의 텍스트 해석학적 이해에 대한 고찰」, 『문학

- 치료연구』, Vol. 42, pp. 41-76.
- 장정은(2016),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본 문학치료의 효용」, 『문학치료연구』, Vol. 40, pp. 9-37.
- 정운채(2008),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Vol.9, pp. 247-278.
- _____(2012),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Vol. 25, pp. 361-381.
- _____(2013),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 입각한 창작 이론」, 『문학치료연구』, Vol. 26, pp. 407-423.
- 주디스 허먼(2012), 『트라우마: 가정 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최현정 옮김, 열린책들.
- Blanco López de Lerma, Maria-José(2013), *Life-writing in Carmen Martín Gaité's Cuadernos de Todo and Her Novels of the 1990s*, Woodbridge: Tamesis.
- Calvi, Maria Vittoria(2007), “El autobiografismo dialógico de Carmen Martín Gaité”, *Revista Cultural*, Vol. 83, pp. 223-235.
- Caruth, Cathy(1995),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Baltimore: Johns Hopkins UP.
- Cruz-Cámara, Nuria(2008), “Nubosidad variable y el psicoanálisis”, *El laberinto intertextual de Carmen Martín Gaité*, Newark DE: Juan de la cuesta.
- Jurado Morales, José(2003), *La trayectoria narrativa de Carmen Martín Gaité*, Madrid: Gredos.
- Kohut, Heinz(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1984), *How Does Analysis Cure?*, Ed. Paul E. Stepanisky and Arnold Goldber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tín Gaité, Carmen(1989), “El interlocutor soñado”, *El cuento de nunca acabar*, Madrid: Destino.
- _____(2010), *Nubosidad variable*, Barcelona: Anagrama.
- O’ leary, Catherine and Alison Ribeiro de Menezes(2008), *A Companion to Carmen Martín Gaité*, Woodbridge: Tamesis.
- Oropesa, Salvador(1995), “Nubosidad variable de Carmen Martín Gaité: una alternativa ética a la cultura del pelotazo”, *Letras Peninsulares*, Vol. 8, No. 1, pp. 55-72.

- Perry, Ruth(1980), *Women. Letters and the Novel*, NY: AMS Press.
- Smith, Sidonie and Julia Waston(2001), *Reading Autobiography: A guide for interpreting Life Narratives*, Minneapolis: Minnesota UP.
- Teruel, José(2006), “Un texto biográfico para Caperucita en Manhattan de Carmen Martín Gaité”, *Género y géneros II: Escritura y escritoras iberoamericanas*, Madrid: Servicio de publicaciones de la UAM, pp. 143-151.
- Van del Kolk, Bessel A. and Rita Fisler(1995), “Dissociation and the Fragmentary Nature of Traumatic Memories: Overview and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8, No. 4, pp. 505-525.
- Womack, Marian and Jennifer Irene Wood(2011), *Beyond The Back Room: New Perspectives on Carmen Martín Gaité*, Oxford. Bern: Peter Lang.

전미연

서울대학교
miyeonjun@snu.ac.kr

논문투고일: 2018년 7월 14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27일

Literary therapy through life-writing in *Nubosidad variable* of Carmen Martín Gaité

Mi-Yeon Jun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 Mi-Yeon(2018), "Literary therapy through life-writing in *Nubosidad variable* of Carmen Martín Gaité",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9(2), 111-136.

Abstract In this article I investigate the originality of Carmen Martín Gaité's literary therapy based on the psychoanalytic perspective in *Nubosidad variable*(1992). The author argues that the search for an ideal interlocutor is essential to get out of non-communication and overcome the traumatic experience. For this reason, the author incorporates the mechanisms of the "talking-cure" and the "writing-cure" as the logotherapy that allows one to reflect critically on the memory of the Civil War and the Franco regime. In the 90s, the author tries to dialogue in her intimacy and through life-writing to connect historical trauma with the daily trauma. In this novel, two female characters try to use life-writing as a way to understand their own lives and to go through traumatic experience. They use diaries and letters as a narrative strategy to take control of their own narratives towards a recovery of selves. I examine the process of literary therapeutics. In literary therapeutics, all human beings are considered literature. From the literary therapeutics perspective, the life is organized by the epic of self, and literary work is composed of the epic of literary work. Through life-writing, the epic of self will be changed healthily and have the ability to overcome the problems.

Key words Carmen Martín Gaité, Life-writing, Ideal interlocutor, Empathy, Literary therapy